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

포이어 무용 · 영상 융복합시리즈

일시 | 워크숍 2020.11.25. 26 수, 목 pm 7:30

공연 2020.11.27. 금 pm 7:30

장소 | 두리츄터 FOYER 극장

공연문의 02-533-2141 <https://www.duritheatre.com/>

이란격석(以卵擊石)

안무 : 김시원

작곡 및 연주 : 박성권

출연 및 공동창작 : 김시원, 서이진, 박성권

계란은 바위를 부술 수 없다. 하지만 부딪혀야 하는 때가 온다.
그 바위가 아닌 다른 바위를 찾을 수도, 바위를 피해갈 수도 있지만
눈앞의 이 바위만은 꼭 부수고 싶은 것이었다.

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바위가 있다.

그 바위는 가볍게 있기도 하고 빨리 있기도 하며 안에 있기도 밖에 있기도 하다.

<계란으로 바위ชน>은 어떤 때부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나의 삶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다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태도는 언제나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었다. 내가 부서질지라도 나를 먼저 공격을 부수고 해결한다.

지금까지의 나의 문제들이 사소했던 것이었기 때문인지, 부딪히면 내가 단단했던 것 때문인지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문제들은 돌파되어 왔었고, 나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. 나이가 하나들 늘어나고 바위를 하나들 부수다 보니 아무리 부딪히도 부서지지 않는 바위를 마주했다. 몇 번을 부딪쳐도 바위는 굳건했다.

한 번도 도망가자 돌아가자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던 내 마음속에는 도망가자 돌아가자 그만하자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. 계란이 아무리 부딪히도 어떤 바위는 부서지지 않는 걸까? 만약 부서지지 않는다면 계란의 부딪힘은 의미가 없는 걸까? 그 바위에 묻은 수많은 계란의 흔적은? <이란격석>은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.

안무 김시원

소속 일확천댄스위 단원

정보경댄스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 멤버

경력 상균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
전)극림무용단 인턴단원

제 17회 SIDC 민족창작부문 2nd

안무작 <홍청이 망청이라>, <안>

2018 두리츄터 우수작가전 초청 <안>

예술감독 강나현 | 기획 · 제작 두리츄터, 포이어프로덕션 | 홍보 히미소, 성주현 | 조명 공민화

주최주관 두리츄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초공연예술(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) 극장의 특성화를 지원하며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안정적인 창작거점 확충을 지원합니다. www.arco.or.kr